

# 고급음식점, 김영란법에 '경직'

### 시행 첫날부터 분위기 썰렁... 적용 범위 모호해 공무원들 약속 취소 이어져

“장사요? 말도 마세요 설마 했는데 당분간 걱정입니다”

28일 전북도청 인근 한 음식점 주인 장의 하소연이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고급 음식점들의 경직된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10여개의 방 중 거의 대부분이 텅텅 비었고 종업원들조차 이직을 걱정해야 될 판이었다.

해당 음식점 업주는 “점심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저녁 장사가 문제다”면서 “일식이라는 음식점 특성상 가격이 좀 나오는 편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으로 누가 가게를 찾겠느냐”고 울상이었다.

실제로 해당 가게는 평소 4~5건 저녁 예약을 보였지만 이날은 한건도 없었다

고급 음식점과 달리 일반 식당에서는 각자 계산하는 소위 ‘더치페이’ 모습도 목격됐다.

테이블마다 서로 음식값을 겨루거나 일행이지만 각자 계산대에 서서 음식값 지불을 위해 줄을 서는 풍경이 낯설 정도다.

그러나 식당가의 혼란은 도청 등 공공기관 인근을 중심으로 벌어졌을 뿐 외곽 식당은 별반 다르지 않은 분위기였다.

공직 사회에서도 김영란법은 민감했다.

적용 범위가 모호, 혹시나 실수할까 봐 불안감과 함께 조심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 도청 공무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걸 겁박하고 저녁 약속잡았다가 문제 소지가 생길까봐 취소했다”며 “공무원들이 만나는 사람들 거의가

직무가 연관돼 있는데 아예 만나지 말아야 될 판”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역시 “직장내 동료 대부분이 조심하는 분위기다. 약속을 잡아도 법에 저촉되는지 확인을 지속적으로 해야만 싶다”면서 “무방한 사회를 가지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되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흐르면 다소 완화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첫 날 음식점에서 만난 한 시민은 취지에 공감하면서 아쉬움도 전했다.

그는 “사형하는 사람들 치고 자영업자가 대부분이며 이들 중 거의가 음식점을 운영한다”며 “법 규제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별 부담할 것이 고 그럼 아무래도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부작용 등을 따져 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싶었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 “개통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에 전라선 편성 반드시 해야”

### 전주상공회의소 건의서 제출

“올 연말 개통되는 수서발 고속철도에 전라선 편성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복합열차로 운행하여 전라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외면하지 말아야 주십시오.”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지난 27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등에 수서발고속철도의 복합열차 운영을 통한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요청 건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경부선은 평도기준 하루 74회에 달하지만, 수도권에서 익산을 거쳐 목포로 향하는 호남선은 24회에 불과하고 수도권에서 익산과 전주를 거쳐 여수로 가는 전라선은 그나마 10회에

불과하여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 운행간격을 보더라도 경부선은 15분간격, 호남선은 27분이고, 전라선의 운행간격은 96분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연말 개통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가 현재 계획대로 운행된다면 경부선은 하루 34회 증편으로 일일 총 107회 운행, 호남선은 18회 증편으로 총 42회에 운행되어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전주상공회의소는 건의서를 통해 “지역 상공인들은 그동안 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선로 부족 등을 이유로 증편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대안으로 현재 고속철도 운행방식처럼 용산역에서 출

발, 익산역에서 객차를 분리해 호남선과 전라선으로 운행하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운행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라선 고속철도 일일 운행 편수 10회인 기존 형태로는 현재 이용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며 “수서발 고속철도에 전라선을 반드시 포함시켜 일일 20회 이상 증편함으로써, KTX가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지역 현안조사에 전체 응답업체의 28.6%가 KTX전라선 증편을 제일 큰 우선순위로 지적했다. /신광영 기자

# “익산 왕궁물류단지 내 대형쇼핑몰 입점 반대”

### 익산소상공인연합회

익산소상공인연합회는 왕궁물류단지 내에 들어서는 대형쇼핑몰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익산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군산 케이퍼코리아 부지에 입점 추진중인 롯데 아울렛에 이어 익산에도 대형 쇼핑몰이라는 악령이 떠돌고 있다”면서 “익산소상공인연합회는 대형 쇼핑몰 입점을 절대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형아울렛은 지역경제를 황폐화 시킨다”며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익산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인구유출 역시 가속화해 소상공인민의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 왕궁물류단지 조성면적 가운데 60%가 절대농지로 분류되는 마당에 이렇게 큰 대형 유통단지를 조성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절대 농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면 땅값이 최

소 몇배에서 몇십배 된다 농사지를 땅을 상업시설화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익산소상공인연합회는 아울렛 대형 쇼핑몰의 악령을 판도라의 상자에서 꺼내려는 일부 언론과 유통단체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들의 진짜 관심사가 물류단지인지, 대형 아울렛 입점을 통한 투기 이익 실현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본 신제품 2종은 후라이팬에 식용유 500ml를 담은 후 약 180도로 가열한 후 제품(1팩)을 넣어 5분간 튀기면 된다.

## ‘후라이드 치킨 맛 5분만에 완성’

### 하림, ‘후다닭 강정’ GS수퍼마켓 출시

(주)하림(대표이사 이문용)은 “바삭바삭하고 매콤달콤한 후라이드 치킨의 대명사 닭강정을 이제 집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고 닭고기 전문기업 (주)하림에서 집에서 5분만에 조리가능한 ‘후다닭 강정 2종’을 오는 29일 GS수퍼마켓에서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닭고기 인기 부위를 활용해 만든 하림 ‘후다닭 다리살 강정’과 ‘후다닭 가슴살 강정’은 튀김 반죽에 버무려져 있어 5분만에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다. 하림이 선별한 국내산 닭고기만을 사용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하림만의 레시피로 바삭한 튀김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또한 매콤달콤한 닭강정 소스와 달콤짭짤한 간장 소스가 따로 동봉되어 있어 개인의 입맛에 따라 선택하여 즐길 수 있다.

본 신제품 2종은 후라이팬에 식용유 500ml를 담은 후 약 180도로 가열한 후 제품(1팩)을 넣어 5분간 튀기면 된다. 조리하기 전, 닭 반죽을 골고루 주물러 양념이 더욱 잘 섞이도록 하는 것이 좋다.

하림 마케팅팀 정충선 차장은 “직접 집에서 바로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출출한 간식 시간에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족 입맛에 따라 후라이드 치킨은 물론, 동봉된 소스와 함께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신제품 가격은 6천원대로 GS리테일에서 운영하는 GS수퍼마켓 전 지점에서 판매된다. /익산=정왕원 기자

# 전북우정청 '전북 은고를 100만 편지쓰기' 전개

2016 전북 은고를 100만 편지쓰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28일 전북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전개하고 있는 '전북 은고를 100만 편지쓰기' 운동을 통해 현재까지 약 15만통의 편지가 오고갔다.

또 다음달 말까지 보내 500여개 기관과 단체, 학교 등에서도 편지쓰기 릴레이에 참가하게 된다.

이번 편지쓰기 행사는 전북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편지 봉투 위에 하트(♥) 또는 별(☆)을 표시해 보내면 된다.

김병수 전북우정청장은 “아날로그 감성의 문화를 지향하는 도민들이 편지쓰기의 매력을 느끼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이마트, 친환경 부직포 쇼핑백 교체

이마트가 일회용 종이 쇼핑백을 단계적으로 없앤다. 이마트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전국 점포에서 일회용 종이 쇼핑백을 대체하기 위한 대용량 부직포 쇼핑백을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부직포 쇼핑백은 500원의 판매 보증금을 지불하면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점에 상관없이 사용 후 전국 이마트 고객센터로 반납시 보증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마트는 일회용 종이 쇼핑백과 대용량 부직포 쇼핑백을 당분간 병행 운영해 고객들에게 대용량 쇼핑백을 알린 후 최종적으로 종이 쇼핑백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마트가 종이 쇼핑백을 없애고, 대용량 부직포 쇼핑백을 도입하는 이유는, 쇼핑백 성능 개선을 통해 고객 편의를 높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보호에 앞장서기 위해서이다.

기존 종이쇼핑백은 재질 특성상 비가 오는 날 사용하거나 냉장·냉동식품 등 물기가 있는 상품을 담으면 내구성이 떨어지는가 하면, 쇼핑한 상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바닥이 찢어지기도 해 고객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마트는 이러한 고객 요청을 반영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종이쇼핑백과 동일한 크기에 강도를 개선한 부직포 쇼핑백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뉴시스

# 롯데백화점 전주점, 민·관 합동 소방훈련

### 완산소방서와 함께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중규)은 28일 완산소방서 주관으로 2016년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은 롯데백화점 비상대기조 10명포함 100여명의 직원과 완산소방서 15여명이 참여했다.

실수차, 응급구조차 등 소방장비 4대를 동원했고 비상사태를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재난 대응체계 구축 합동훈련을 가졌다.

특히 훈련 참가자들은 초기 부여된 백화점 1층 매장 화재발생, 다수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메시지에 따라 초기상황 전파 - 인명대피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 긴급구조 -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 긴급구조 - 화재진압 설치 - 훈련 강령 등으로 훈련을 진행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관계자는 “이날 훈련은 화재발생 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초동 대응 태세를 갖춰 실천 적능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라며 “1층 오후 매장에서 화재 발생을 가상의 초기대응부터 시나리오까지 전 과정을 훈련했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